

■ 논문 ■

동학과 천도교의 타자로서의 서양 인식

조규태(한성대학교)

1. 머리말

1860년 최제우에 의하여 창시된 東學은 西學의 他者로서 탄생하였다. 즉, 서구 열강이 중국과 일본을 무력으로써 개항시키고, 서학이 堂獄說과 無父無君說 등으로 조선의 질서를 파괴하던 때에, 서양과 서학에 대한 두려움에서 최제우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고 동학을 창시하였던 것이다. 최제우는 동학의 경전에 ‘東洋’에 대한 타자로서 ‘西洋’, ‘동양인’에 대한 타자로서 ‘서양인’, ‘東道’에 대한 타자로서 ‘洋道’라는 글귀를 실었다. 또 그는 ‘東學’에 대한 타자로서 ‘洋學’이란 용어도 사용하였다.

그런데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할 때 타자로서 활용되었던 광의의 서양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동양의 대척점으로 서양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사실적이고 중립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취하는 서양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는 부러움으로, 서양인은 말이 조리가 없고 글이 분별이 없다고 할 때는 비하로,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고 천하를 취하였다고 할 때는 비난의 양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제우의 타자에 대한 인식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었다. 또 불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었다.

동학과 그 후신인 천도교를 믿은 동학도와 천도교인의 타자로서의 서양에 대한 인식도 다면적이고 유동적이었다. 문명화의 대상으로 서구를 바라볼 때, 서양은 찬탄과 회구의 대상이었다. 또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지지하고, 태평양전쟁에서 영·미와 혈전을 전개할 때, 서양은 배척과 비난, 궤멸과 멸종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동학과 천도교의 서양에 대한 인

식은 다양하고 유기적인 모습을 띠었다.

지금까지 동학과 천도교의 서학과 서양문명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다룬 연구들은 적지 않았다. 먼저 동학의 탄생 배경을 검토하면서, 동학의 반서학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¹⁾ 그리고 동학의 개화운동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동학의 서구문명에 대한 회구를 검토하였고²⁾, 문화운동기 천도교의 서구의 사상과 문화와 문명에 대한 지향의 측면을 다룬 적도 있었다.³⁾ 아울러 전시체제가 천도교의 서양인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언급한 연구도 있었다.⁴⁾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傳稿로 동학과 천도교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통시기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동학과 천도교의 타자로서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나누어 통시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변화를 알아보려 한다. 먼저 동학을 창시할 당시의 최제우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경전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동학과 천도교가 근대화운동을 추진할 당시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경전과 논설, 수필 등을 통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종주의가 만연한 태평양전쟁기 천도교의 서양에 대한 인종주의적 인식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 타자로서의 서양 인식과 동학의 성립

동학이 창시된 1860년 무렵 최제우는 西洋을 東洋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서양의 지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는 西洋人和 西學을 나름대로 이해하여 東洋人和 東學의 他者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1) 신일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동학사상의 이해』(사회비평사, 1995); 김용희, 「수운 최제우의 아국인식과 동학의 어원적 의미 - 서학과 유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20 (2007).

2) 이은희, 「동학교단의 갑진개화운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이현희, 「갑진개화운동의 역사적 전개」, 『동학학보』 4 (2002).

3)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동학·천도교편-』(혜안, 1995).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허수, 『일제하 이돈화의 사회사상과 천도교: '종교적 계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4) 김정인, 『천도교의 근대 민족운동 연구』(한울, 2009).

먼저 그가 서양인을 처음에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논학문>이 참고가 된다.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西洋之人은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워 그 조화로써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리하여 무기로 싸우는데 그 앞에 당할 사람이 없으니, 중국이 멸망한다면, 우리나라도 어찌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근심이 없겠는가? 모든 연유는 다름이 아니다. 이 사람은 道는 西道를 칭하고, 學은 天主를 칭하며, 教는 聖敎라 하니 이는 天時를 알고 天命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런 것을 일일이 들려면 끝이 없는 고로 나 또한 悚然하여 단지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할 즈음이었다.⁵⁾

위의 글에 따르면, 최제우는 일반사람들이 “西洋의 사람들은 道를 이루고 德을 세워 그 조화로써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고, 무기로 싸우면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서양의 사람들은 西道·天主學·聖敎를 칭하니 이들은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최제우가 서양인에 대해 처음에 가진 인식은 이들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최제우는 서양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나름대로 이들의 실체를 규명하여 이들을 비판하였다. 최제우는 <논학문>에서 서양인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는 검고 힘의 구별이 없으며, 삼가 천주를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단지 자신을 위하는 술책만을 바랄 뿐이니, 몸에는 氣化의 神異가 없고, 배움에도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⁶⁾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서양인을 “천주의 뜻으로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고서 공격하여 천하를 취하여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하였다.”⁷⁾고 하여 신의 없는 사람으로 비판하였다. 요컨대 최제우는, 우리가 시비의 분별이 있고 신의가 있으며 이타적인 데 반하여, 서양인은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약탈적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최제우는 서양인들을 ‘西洋賊’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하였다.⁸⁾

5) <<동경대전>>, <논학문>,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21-22쪽.

6) <<동경대전>>, <논학문>,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25쪽.

7) <<동경대전>>, <포덕문>,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13쪽.

8) <<용담유사>>, <권학가>,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248쪽.
“요망한 서양적(西洋賊)이 중국을 침범해서 천주당 높이 세워 거소위(學所謂)

다음으로 최제우의 서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글이 도움이 된다.

曰 然則何道以名之잇고?

曰 天道야니라.

曰 與洋道無異者乎잇가?

曰 洋學은 如斯而有異하고 如呪而無實이나 然而運則一也요. 道則同也로대 理則非也니라.

曰 何爲其然也잇고?

曰 吾道는 無爲而化矣라. 修其心正其氣하고 率其性修其教하야 化出於自然之中也요. 西人은 言無次第하고 書無皐白 而頓無爲天主之端하고 只祝自爲身之謀하니 身無氣化之神하고 學無天主之教라. 有形無迹이요 如思無呪하니 道近虛無요 學非天主라. 謂無異者乎아.(논학문)

曰 同道言之則名其西學야잇고?

曰 不然하다. 吾亦生於東受於東하니 道雖天道나 學則東學이요. 況地分東西하니 西何謂東이며 東何謂西리오. 孔子는 生於魯 風於鄒하야 鄒魯之風이 傳遺於斯世어늘 吾道는 受於斯 布於斯하니 豈可謂以西名之者乎잇고.(논학문)⁹⁾

위의 글에서, 최제우는 서학은 우리의 학문과 같은 듯하나 다르며 비는 것 같지만 진실함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학이 運과 道는 우리의 것과 같지만 理致가 다르다고 하였다. 풀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학문이 天道의 이치를 無爲而化로 삼아 사람들이 마음을 닦고 그 기를 바르게 하며 그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닦아서 변화가 자연스런 가운데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그는 서학은 천도의 이치를 虛無로 삼아 사람들이 말에 순서가 없고 글에 시비의 분별이 없으며 삼가 천주를 위하는 실마리가 없고 다만 제 몸을 위하는 방책만을 빌 뿐이니 몸에 기화의 신이 없어서 天主의 가르침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서양인과 서학을 동양인과 동학의 他者로서 분명히 인식하

한난도(扞難道)를 천하에 편만하니 가소절창(可笑絕唱) 아닐런가”.

9) <<동경대전>>, <논학문>,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24-26 쪽.

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하에서 동학을 창시하였다. 최제우는 관에 체포된 후 供招에 대한 답변에서 “洋學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敬天之心’으로 열세 자 주문을 지어 東學이라고 했고, 명칭을 東學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東國의 이름을 취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陰인 洋學을 陽인 東學으로 제압하려 했다.”고 하였다.¹⁰⁾ 이 글을 통하여, 최제우는 西洋을 우리나라인 東國의 타자로, 陰인 서학을 陽인 동학의 타자로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동학을 창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서학적인 입장에서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자신을 서학과 분명히 구별지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서학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하자, 최제우는 서학에는 名人이 없는데 자기가 서학을 빌어 이름을 내겠냐고 반박하였다.¹¹⁾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할 무렵에 가졌던 동학의 반서양적인 인식은 동학농민운동 무렵의 동학도들에게도 존속되었다. 1892년 10월 공주최회 무렵 서인주와 서병학 등이 충청감사인 조병식에게 제출한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에는 “西夷之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왜의 해독은 다시 외지에서 날뛰고 있고, 흥역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¹²⁾고 하여, 동학교인들의 반서양인과 반서학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1893년 1월 10일 경삼례에 모인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이 전라감사에게 보낸 글에도 “왜적과 양적이 나라 한가운데로 들어와 큰 혼란이 극심하다. 실로 오늘날 나라의 수도를 보건대 마침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다. (중략) 우리 수만 명은 힘을 합쳐 죽기를 맹세하고 왜적과 양적을 물리쳐 大報之義를 본받고자 한다.”¹³⁾라고 하여, 반서양적인 인식이 표출되었다. 이후

10) 신일철, 『동학사상의 이해』 (사회비평사, 1995), 128쪽.

11) <<용담유사>>, <안심가>,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 (정민사, 1986), 158-159쪽. 요약한 그 인물이 할 말이 바이 없어/ 서학이라 이름하고 온 동내(洞內) 외는 말이/ 사망련(詐妄譴) 저 인물이 서학에나 싸잡힐까/ 그 모르는 세상 사람 그것을 말이라고/ 주켜들고 하는 말이 용담에는 명인 나서/ 범도 되고 용도 되고 서학에는 용터라고/ 종중 걸음 치는 말을 역력히 못할로다./ 거룩한 내집부녀 이글 보고 안심하소/ 소위 서학 하는 사람 압만 봐도 명인(名人) 없대/ 서학이라 이름하고 내뎐 발천(發闡)하렸던가.

12) 배항섭, 「동학의 확산과 반침략·교조신원 운동의 전개」,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 141쪽.

13) 배항섭, 앞의 책, 160-161쪽.

1893년 2월의 伏閣上疏와 1893년 3월의 보은취회와 금구취회에서도 이러한 반서양적 인식은 유지되었다.¹⁴⁾

III. 개화·문화운동기 동학·천도교의 문명론적 서양 인식

동학과 동학교인의 반서양적 인식은 1901년 손병희가 일본에 망명한 후,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할 무렵부터 바뀌어졌다. 최시형 사후 동학의 도통을 이은 손병희는 동학농민운동 후 문명개화운동론의 확산, 서북지역 교인들의 문명개화운동 희망, 1901년 일본 망명 후 개화파 인사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문명개화사상을 갖게 되었다.¹⁵⁾ 손병희는 1903년 지은 <三戰論>에서 외세를 배격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⁶⁾ 손병희는 같은 해에 집필된 「明理傳」의 <창세원인장>에서는 “옛날의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으나, 서양 사람은 今世의 운수를 타고나 동양사람보다 투철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가 밝아 공화와 입헌의 정치를 세상에 드러내어 동서양이 뒤집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동양에서 그 정치를 변화하여 천명을 공경하고 인심에 순응하여 인재를 길러 찬란한 문물을 다시 세상에 밝히면 옛날의 문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⁷⁾ 1904년 3월 손병희가 보낸 <의정대신각하전상서>에서 손병희는 “서양지인은 才藝를 必達하여 人造之術이 逐物必備하니 此則可學而引用者也”라고 하였다.¹⁸⁾

이러한 손병희의 생각은 휘하 교인들에게도 공유되었다. 1904년 음력 7~8월 나인협은 광고를 통하여, ‘우리 대한이 한 모퉁이에 궁벽하게 있어, 세계 각국의 문명개화한 풍속을 알지 못하여 세계 각국이 야만국이라 칭하니 팔도인민이 團會하여 개회하여 타국의 문명개화를 본받아 동양

14) 배항섭, 앞의 책, 80-119쪽.

15)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 『동아연구』 21 (1990), 81-91쪽;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호 2001, 186-196쪽.

16) 최기영,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76 (1994), 102쪽.

17) 천도교중앙총부, 『신사정사법실』 (1986), 425-427쪽;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천도교경전』 (1974), 79-80쪽.

18) 천도교사편찬위원회 편, 『천도교백년략사』 상, 1981, 341쪽.

삼국의 평화를 이루고 아국강토를 방어하라'고 주장하였다.¹⁹⁾ 또 1904년 음력 9월 평양의 進歩會 개최 시 관아에 제출한 글에서, '현재 세계 각국에는 국회와 국교가 있으니, 크게 民會를 열어 안보의 계책을 세우자'고 하였다.²⁰⁾ 요컨대 1903·1904년 동학이 개화운동을 추진하던 무렵부터 손병희를 따르던 동학교인에게 서양은 문명국으로서 모방의 대상과 이루어야 할 목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1905년 12월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꾼 후, 천도교단이 교리와 교제와 교인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천도교인들은 서양을 정치·경제·사회 등의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문명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1907년 3~4월 「만세보」에 연재된 「玄機問答」에서 “敎는 밖으로 行實과 法律과 實業에 注意하여 名譽와 利益의 最優等を 自期하는데 衣服과 飲食과 居處와 藥을 各히 文明制度로 肉身に 適當한 度數를 맞추거니”²¹⁾라고 하여 천도교는 행실과 법률과 실업, 의복과 음식과 거처 등을 서양식 문명으로 이루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정신적 혹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천도교는 서양의 종교보다는 천도교의 이념이 개인과 가정과 세계에 확산되기를 희망하였다. 천도교는 「현기문답」에서 “사람마다 하늘 光彩로 文明하며, 집집마다 하늘 光彩로 文明하며, 世界가 하늘 光彩로 文明함이 敎의 精神이다.”²²⁾라고 하였다. 또 「대중정의」에서는 이 천도교의 사상문명이 현대문명의 前駕를 행함이 옳다고 하였다.²³⁾ 이종린은 1913년 『천도교회월보』에 글을 실어 “문명에는 일시적 물질을 개발하는 肉身文明과 영구적 도덕을 확장하는 聖靈文明이 있는데, 금일의 문명은 육신적 문명 같은 성향이 있다. 금일의 세계가 진실로 영구적 문명을 요구한다면, 사람을 대하기를 天으로 하고 大同太平할 大道大德인 天道敎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²⁴⁾

19) 『대한매일신보』 (1904. 9), 14쪽, <동학광고문>; 조규태, 『동아연구』 21, 88쪽.

20) 김추강, 「나대령의 기계」, 『신인간』 79 (1934), 5, 42-45쪽; 조규태, 『동아연구』 21, 90쪽.

21) 천도교 중앙총부, 「현기문답」, 최기영·박맹수 편, 『韓末 天道敎 資料集』 1(國學資料院, 1997), 351쪽.

22) 천도교 중앙총부, 「현기문답」, 앞의 책, 354쪽.

23) 천도교 중앙총부, 「대중정의」, 앞의 책, 92쪽.

24) 이종린, 「一月一日」, 『천도교회월보』 30호 (1913. 1), 4-5쪽.

고 하였다.

3·1운동 후부터 1920년대에 걸쳐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이 추진되던 무렵, 천도교에서는 서양문명을 수립해야 할 신문화의 연원으로 간주하였다.²⁵⁾ 북경의 유학생인 李東谷은 1922년 「동서의 문화를 비판하여 우리의 문화운동을 논함」이란 글에서, ‘서양문화가 의지(Will)의 확장을 근본정신으로 삼아 과학과 民本(Democracy)을 특별히 발전시켰으나 동양문화는 의지의 調和를 근본정신으로 삼아 玄學과 順自然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화를 산출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는 ‘서양 민족이 분투의 정신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개조하여 왔으나, 동양 민족은 安分과 禁慾으로써 고정되고 응체되어 문화가 퇴화되고 枯化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정치에 있어서 ‘서양문화는 전제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개성을 중시하여 자유와 평등의 데모크라시를 시행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생활 방면에 있어서 ‘서양의 문화가 個性의 신장과 法治를 신성시 하여 가족 간에는 서로 自我的 만족으로써 사랑을 유지하며 공동의 권위와 의무를 공동으로 노력하고, 朋友 간에는 피차 개성을 존엄하여 信義를 保維하며, 사회·국가·세계에 대하여는 개인의 主義를 高調로 여기면서도 가족과 소수보다 사회와 다수를 중시하고 법치를 본위로 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또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 그는 ‘서양의 문화가 미신에 굴복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하고 人神을 숭배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 하는데 반하여, 동양의 문화는 우주를 존엄하게 보지만 인생을 낮게 평가하여 허위의 神을 미신하며 人生으로 하여금 그 신의 노예가 되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半開의 상태에 있는 동양문화는 문화의 의식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인간을 본위로 하지 않아 현대의 생활에 해를 입히므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이동곡은 ‘東洋文化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포기하고, 전반적으로 西洋文化를 계승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였다.²⁶⁾ 천도교청년회의 대표로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던 김기전도 “현세의 이익만 찾는 중국의 고유한 文學과 思想은 우리의 新文化를 건설하는 데 少毫의 자료를 공급할 것이 없다.”²⁷⁾고 하였다. 동

25)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의 내용」,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7), 71-92쪽. 이하 문화운동기 천도교에서 지향하던 문화와 신인간의 정신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여 작성함.

26) 北旅東谷(李東谷), 「東西의 文化를 批判하여 우리의 文化運動을 論함」, 『개벽』 29호, (1922.11), 86-92쪽.

27) 妙香山人, 「中國文學의 價値를 論함」, 『개벽』 4호 (1920. 9), 86·90쪽.

양의 전통적 문화가 아닌 서구의 근대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신문화운동기 천도교에서 수용하려던 서양의 문화는 자기·자율·자력을 중시하는 서양의 자유주의사상에 기초한 문화였다. 손병희의 사위로 천도교 중앙총부의 大宗司長이었던 정광조는 “人乃天의 本位란 통속적으로 말하면 自己를 본위로 한다는 말이고, 무엇이든지 自己가 自己를 解釋하고 自己가 自己를 處分하는 것이고, 각기 自己의 自覺 下에서 自己의 한울을 自己가 깨닫고 自己의 행위를 스스로 깨달아 萬事萬理를 自己의 중심 下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이돈화도 문화시대에 있어서 교화의 궁극적인 기초는 자력이라고 하였다.²⁹⁾

아울러 천도교에서는 서양의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개인에게 심어 주려 하였다. 이돈화는 창조적 본능과 초월의식을 갖추라고 하였다.³⁰⁾ 박달성은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우주의 대자연을 자기의 心身에 담을 수 있는 대담하고 열정적인 인물이 되라고 하였다.³¹⁾ 신언준도 조선청년들에게 그치지 않고 前進하며, 勤勉하고 활동적인 靑年이 되라고 주장하였다.³²⁾ 또 김기전은 러스킨의 말을 인용하여 청년들에게 현재 가진 것보다 더 좋고 훌륭한 것을 가지며, 특별한 곳을 가보기를 희망하는 진취적 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³³⁾

자기를 본위로 한다고 하여 이기적이고 생존경쟁적인 서양의 문화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도리어 천도교에서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을 비판하고, 사회유기체론에 입각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조화와 협동을 강조하는 문화를 형성하려 하였다. 천도교 문화운동의 대표적 이론가인 이돈화는 글자의 의미상의 自由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自由란 유의식적·무의식적

28) 정광조, 「神視時代의 信仰과 人視時代의 信仰」, 『천도교회월보』 111 (1919. 12), 27-29쪽.

29)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85쪽.

30) 이돈화, 「사람성과 의식태의 관계」, 『개벽』 59호 (1925. 5), 5·6쪽.

31) 『동아일보』 (1921. 6.22), 4쪽.

32) 신언준, 『靑年同德에게』, 『新人間』 13호 (1927. 6), 20-21쪽.

33) 김기전, 『盲從으로부터 妥協에 妥協으로부터 自主에』, 『개벽』 12호 (1921. 6), 12쪽.

으로 타인의 행위와 스스로 협동·조화하는 단독적 행위라고 하였다.”³⁴⁾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문화운동기 천도교에서 수용하려던 서양의 문화는 사상적으로는 개인적 자유를 기초로 하면서도 전체 유기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문화운동기 천도교에서 인식한 서양의 문화는 자율적이고, 창조·진취적이며, 조화·협동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천도교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갖춘 신인간을 형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문화를 건설하며, 그럼으로써 이상적인 신사회를 수립하기를 희망하였다.

IV. 전시체제기 천도교의 인종주의적 서양 인식

동학시기에도 천도교에 인종주의적 서양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무렵, 동학의 간부들과 교인들 중에는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백인종인 러시아보다 황인종인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손병희가 일본 적십자에 거액의 자금을 내고, 다수의 교인들이 일본의 철도 건설을 지원한 데에는 “러일전쟁이 단순한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고 동양 대 서양의 인종싸움이며, 만일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우리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이 될 수 없다”³⁵⁾는 인종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천도교에서 인종주의적 서양 인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이 시기에는 동학과 천도교가 근대화운동을 추진하여 서양의 문화를 이룩해야할 모방의 대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을 넘어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천도교의 서양인과의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급격히 변하였다. 중일전쟁의 발발 후 인종주의적 시각이 대두되었고,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생을 전후해서는 천도교인들의 인종주의적 인식이 강화·확산되었다.

34)이돈화, 「世界三大宗教의 差異點과 人乃天主主義의 一瞥」, 『개벽』 45호 (1924. 3), 55-57쪽.

35)이종린, 「삼십년전 회상」, 『신인간』 160 (1941.10), 3쪽.

중일전쟁 발생 5년을 맞는 1941년 1월 『신인간』에 실은 「황군장병에게 감사를 드림」이란 글에서, 이룸 미상의 이 천도교인은 중일전쟁에 대한 인종주의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즉, 천도교인은 소위 황군이 서남으로 英·美의 援蔣루트를 차단하며, 佛·印의 영내까지 진주한 것을 “동양을 서양세력의 壓搾에서 구출하고 황인종 제민족을 백인종의 羈絆에서 해방시켜 대동양의 공영권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⁶⁾

태평양전쟁 직전인 1941년 10월, 이종린은 당시를 동양과 서양이 인종전쟁을 벌인 러일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東洋의 血을 가진 자라면 4歲兒까지라도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는 시국”이라고 하였다.³⁷⁾ 조기간도 1941년 11월 “이번 시국을 잘 돌파하고 못하는 데에 따라 전 동양, 전 유색인종이 있고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³⁸⁾

태평양전쟁 1년 후인 1942년 12월에는 逸蓮 조기간이 「聖戰必勝의 三代要訣」이란 글에서 “키 크고 코 큰 米英의 코대들이 우리 동양사람을 키 작고 코 낮고 눈은 나왔다고 얼마나 업수이 보았습니까?”³⁹⁾라고 하였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국민들을 ‘키 크고 코 큰 콧대’라고 하고, 동양인들을 ‘키 작고 코 낮고 눈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하여 영·미인과 일본인 사이의 신체적인 차이를 부각시켰다. 그럼으로써 그는 영·미인과 일본인 사이의 전쟁을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닌 인종간의 전쟁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정광조는 1943년 4월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今此大戰은 실로 ‘먹느냐 먹히느냐’하는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앵글로색슨의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拔本塞源的으로 潰滅淸掃하고야 我大日本帝國의 安泰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아세아의 십억민중을 陷之死地에서 구출할 수 있는 대전쟁이다. 그야말로 국가천년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대전쟁이다. 그러니만큼 적으로 하여금 재기의 여력이 없을 만한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贏得하기까지는 결전에 결전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⁴⁰⁾

36)미상, 「황군장병에게 감사를 드림」, 『신인간』 152 (1941. 1), 2쪽.

37)이종린, 「삼십년전 회상」, 『신인간』 160 (1941. 10), 2-4쪽.

38)조기간, 「삼백만동덕에게 읍소」, 『신인간』 161 (1941. 11), 8쪽.

39)逸蓮, 「聖戰必勝의 三代要訣」, 『신인간』 172 (1942.12), 8쪽.

40)川上廣朝,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신인간』 176 (1943. 4), 2쪽.

위의 글에서 정광조는 일본과 미국간의 태평양전쟁을 아세아인과 앵글로 색슨족 간의 싸움이라고 하였다.

인종주의적 인식이 강화·확산되면서, 천도교인들의 백인종과 서양세력에 대한 태도도 악화되었다. 조기간은 1942년 12월 「聖戰必勝의 三代要訣」이란 글에서 미·영의 서양세력을 ‘舊’·‘老人’이라고 폄하하고, 심지어 ‘惡’, ‘盜賊’ 혹은 ‘인류의 公敵’이라고 비난하였다.⁴¹⁾

백인에 대한 태도가 악화되는 것과 짝하여, 천도교인들은 백인들이 수립한 서양의 문명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예컨대 천도교의 한 교인은 “대신사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여 서양문명은 물질문명이요, 도덕은 假善의이요 이기적이요 개인적이다. 따라서 攻鬪侵略이요 약육강식이다. 천주를 신앙한다 하여 천리와 천의에 합치되는 도가 아닌 것을 개탄하였다.”⁴²⁾라고 하였다.⁴³⁾ 그럼으로써 그는 서양문명의 도덕은 가선적·이기적·개인적이어서 공격침략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서양의 사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長崎祐三은 “일본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만 추구하며 我私我利를 도모한다면 그는 英美思想의 포로된 者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일본인으로서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한갓 생존권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露西亞思想의 포로된 자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統一無垢의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修禊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그는 영국과 미국 및 러시아의 개인주의·민주주의·공산주의 사상을 사리사욕을 일삼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한갓 생존권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천도교인 중에는 서양의 학문적 방법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컨대 三敬長元은 서양문화에서 논리학적·수사학적 논법으로 정연하게 이론이 짜였으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41) 逸蓮, 「聖戰必勝의 三代要訣」, 『신인간』 172 (1942.12), 5·7쪽.

42) 야뢰(이돈화), 「동경대전 해설」, 『신인간』 162 (1941.12), 25쪽.

43) 長崎祐三, 「統一無垢의 일본인이 되라」, 『신인간』 177 (1943. 5), 5쪽.

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이 서양문화의 죄악이라고 하였다.⁴⁴⁾

서양인, 서양문화, 서양학문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던 천도교인들 중의 몇몇은 궁극적으로 서양이 몰락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제민족이 부상하는 것을 하늘의 명령과 이치이며, 운수라고 이해하였다. 예를 들어, 조기간은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구성원리로 한 영·미의 세계제패권이 壞滅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暴淚慘憺한 영미의 착취압박 하에 났히어 인고에 인고를 쌓아오던 동아시아 제민족 제국가군은 皇國 日本을 맹주로 (중략) 신세력으로써 조성될 것은 명약관화하고, 이것은 天命·天理·天運”이라고 하였다⁴⁵⁾

이런 인식 하에 어떤 천도교인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세계의 신질서를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천도교인 和田欽五(李君五)는 천도교의 기관지인 『신인간』 163호에서 “아 大日本神國의 사명인 대동아공영권 확립, 세계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一億一心으로 強念強進하면서 身沒하면 귀신의 靈力으로 活動佑助하고, 又 再生하면 後身으로 繼進하여 차 세계에 敵魔의 형적을 驅逐掃淸하는 것이 眞是 神國 臣民의 본무인 것을 大覺長進할 뿐입니다.”⁴⁶⁾라고 하였다. 조기간은 전쟁을 통한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後天開闢이라고 하면서 옹호하였다.⁴⁷⁾

檀庭(朴流)은 일본이 중일전쟁을 벌이는 것을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영국과 미국, 소련이 동아시아 신질서의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을 영원히 착취시장의 대상으로 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인 만큼 향후 이들을 배격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⁸⁾

천도교인 중에 혹자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 신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우리가 皇國인 일본의 臣民임을 인식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광조는

44) 三敬長元, 「실생활과 교리」, 『신인간』 166 (1942. 5), 10쪽.

45) 逸蓮, 「聖戰必勝의 三代要訣」, 『신인간』 172 (1942.12), 5쪽.

46) 和田欽五, 「神國臣民의 본무」, 『신인간』 163 (1942. 1), 11쪽.

47) 조기간, 「삼백만 동덕에게 읊소」, 『신인간』 161 (1941.11), 8쪽.

48) 단정(박완), 「동아시아신질서 건설」, 『신인간』 148호 (1940. 8), 16쪽.

“일본 국토는 現神天皇의 御宇하신 神域이요, 일본 국민은 현신천황의 神子神孫이다. 일본국가를 一 가정이라 하면 천황은 가장이요 국민은 가족이며, 一 신체라면 천황은 頭首요 국민은 사지백체의 세포이다.”라고 하였다.⁴⁹⁾ 또 천도교의 이론가인 이돈화는 “人乃天은 인간이 곧 神의 자라는 뜻이므로, 천도교의 정신은 일본을 神國, 일본인을 神子·神孫으로 보는 일본 국체의 정신과 부합한다.”⁵⁰⁾고 하면서, 천도교의 이념으로 볼 때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의 천도교인들은 우리를 황국의 신민에 걸맞는 皇道精神으로 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와 천황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함양하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長崎祐三 1943년 5월 「순일무구의 일본인이 되라」라는 글에서 국가를 위해 개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깨끗이 씻어버리라고 하였다.⁵¹⁾ 그리고 조기간은 동아 내지 세계질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일억황민이 자유주의·공리주의·유물주의·향락주의 등등의 스프를 섞지 않은 皇道精神으로 사상의 통일을 이루라고 하였다. 즉 ‘君民一體와 億兆一心’을 중핵사상으로 하고 ‘군신의 義와 부자의 情’이란 가족주의원리에 입각한 정신으로 사상의 통일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⁵²⁾

그리고 천도교인 중의 혹자는 황국의 발전과 황국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조기간(川谷正)은 1943년 4월 「창도백년을 바라보면서」라는 글에서, 근로, 절약, 저축 기타일절의 직역 등의 봉공과 아울러 인재의 양성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⁵³⁾ 그리고 정광조는 우리들 국민의 재산과 자녀와 신명은 온통 폐하의 소유이니 진정 ‘천황귀일’의 신념이 철저하다면 때와 장소를 따라서는 폐하를 위하여 생산증강이나 소비절약이나 저축목표달성이나 징병제뿐만 아니라, 사생을 鴻謨와 같이 버리라고 하였다.⁵⁴⁾

49) 川上廣朝,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신인간』 176 (1943. 4), 2쪽.

50) 白山一熊, 「인내천의 재음미」, 『신인간』 161 (1941.11), 6쪽.

51) 長崎祐三, 「순일무구의 일본인이 되라」, 『신인간』 177 (1943. 5), 5-6쪽.

52) 逸蓮, 「聖戰必勝의 三代要訣」, 『신인간』 172 (1942.12), 6-7쪽.

53) 川谷正, 「창도백년을 바라보면서」, 『신인간』 176 (1943. 4), 11쪽.

54) 川上廣朝,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신인간』 176 (1943. 4), 2쪽.

전시체제기 천도교인들은, 문화운동기에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동경하고 찬양하였던 것과 달리,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공격하고 동양문화를 찬양하며 그 부활을 희망하였다. 천도교의 이론가인 이돈화는 大神師인 최제우가 동양문명을 지금 쇠퇴부패된 경향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정신적이고 天道天理이고 誠敬信이고 王道皇道이고 공존공영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동양문명을 찬양하였다. 더욱이 그는 세계를 구제할 도가 동양정신문명의 부활에 있고, 동양정신의 총결정체는 동학이라고 하였다.⁵⁵⁾

V. 맺음말

동학은 1860년 서양인과 서학 등 서양을 타자로 인식한 최제우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최제우는 동양인의 타자로서 서양인을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워 그 조화로써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고 싸우면 당할 자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서양인을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시비의 구별이 없으며 천주를 위하는 측면이 없고 단지 자신만을 위할 뿐이어서 몸에 기화가 없고, 배움에도 천주를 위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서양인들을 신의가 없고, 약탈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또 최제우는 서학에 대해 말하기를 동학과 運과 道는 같지만 이치가 다르다고 하였다. 즉 그는 동학이 無爲而化를 理致로 삼는 데 반하여 서학은 虛無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처럼, 최제우는 서양인과 서학을 동양인과 동학의 타자로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시 만연하는 서학을 제압하기 위하여 東學을 창시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시에도 동학도들은 서양에 대해서 반서양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당시 동학도들은 서양인을 오랑캐라고 비하하고, 서학을 ‘西夷之學’이라고 폄하하였다.

그런데 손병희가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천도교의 창시 이후에는 동학과 천도교는 서양인과 서구의 문명을 모방하고, 달성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1904년 갑진개화운동 당시 천도교인은 서양인을 재예가 통달하여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서양의 문명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간주되었다.

55)야퇴(이돈화), 『동경대전 해설』, 『신인간』 162 (1941.12), 25쪽.

1920년대 문화운동기에 있어서 천도교인들은 서양의 문화가 자아와 자율과 자력, 진취성과 창조성, 조화와 협동의 정신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신을 갖춘 신인간을 형성함으로써 신문화를 수립하고, 그럼으로써 이상적인 신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1920년대에 있어서, 서양의 문화와 문명은 천도교인들에게 희구의 대상이 되었고, 서양인은 형성해야 할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30~40년대 전시체제기, 특히 태평양전쟁기에 들어와, 일부의 천도교들은 당시를 백인종과 황인종의 전쟁의 시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시각에서 서양인을 ‘구’, ‘노인’이라고 폄하하고, 심지어 ‘악’, ‘도적’, ‘인류의 공적’이라 하여 비난과 제거의 대상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교인들은 서양인이 수립한 문명도 가선적·이기적·개인적이고, 공격침략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신질서의 수립을 위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문명을 파괴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반하여, 일부의 천도교인들은 우리와 일본인을 황국신민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황국신민이 주도하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신질서의 수립을 염원하였다. 또한 천도교인들은 서양문명을 비하하고,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문명을 높이 평가하였다. 심지어 천도교 중에는 교인들에게 천도교의 人乃天의 교의 하에 황국신민의 위상을 이해시키고, 동귀일체의 교리 하에 君民一體, 億兆一心의 정신으로 사상의 통일을 이루고, 皇國의 臣民으로서 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할 것을 촉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천도교인 중 혹자는 교인들에게 근로, 절약, 저축, 기타 일절의 직역 등을 행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재산과 자녀와 신명을 바치라고 하였다.

ABSTRACT

Donghak and Cheondogyo's Understanding of the West

Cho Kyu Tae(Hansung University)

Donghak was founded in 1860. Seohak of east study grew fashionable in the east, and westerners invaded Ching dynasty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From the fear toward the west, Choe Je Woo founded Donghak.

About that time, Choe Je Woo criticized westerners as faithless. And he evaluated Seohak more critically than Donghak in the matter of religion and morality.

The front and rear of the Donghak Peasants Movement in 1894, Donghak Believers called westerners robbers of the west and barbarians. And they believed Seohak as the study of barbarians.

But the attitude of Donghak toward the west was changed about 1904. Son Byung Hee of the third Donghak pope went to Japan in 1901. He met some persons oriented for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He learned about the western country and civilization from them. Then he thought the west as the area of civilization. Donghak believers organized the Jinbohoe in 1904. And they developed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movement. It was the movement toward western civilization, although they didn't ignored the value of the eastern civi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movement, Donghak changed the name of Donghak to Cheondogyo.

From that time, especially after the 3 · 1 Movement, Cheondogyo had developed cultural movement for western civilization. Cheondogyo believers wanted to make new men with new culture, which was made around self-consciousness, progressive spirit, creativity, and the spirit of harmony and cooperation.

But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a few of Cheondogyo believers thought westerners as the object of attack and reproach

and removal. They revealed a racism to kill the white people. Also they thought the western culture and civilization to the object of demolition. Because these were formed around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On the other hand, they believed the rise of the yellow people. Thus they urged the coalition of the yellow people to cast out the white people. And they admired the eastern culture and civilization. Some persons said Cheondogyo believers to form the spirit of Japan emperor's subjects as the essence of the eastern culture and civilization.

sooahn99@paran.com

Key Words: Donghak, Cheondogyo, Choe Je Woo, Son Byung Hee, cultural movement, the spirit of Japan emperor's subjects